

# 조선시대 독서론에서의 독서 목적과 방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urpose and Method of the Reading on the Reading Theory in the Cho-seon Dynasty

소 병 문 (Byoungmoon So)\*

### 목 차

- |                      |                      |
|----------------------|----------------------|
| 1. 서론                | 4. 조선시대 독서론에서의 독서 방법 |
| 2. 이론적 배경            | 5. 결론                |
| 3. 조선시대 독서론에서의 독서 목적 |                      |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학문 분야별 전통적 독서론의 선행연구를 참고해 문헌정보학 분야에 있어 조선시대의 독서 목적과 방법을 재구성하는데 있다. 선행연구에서 조선시대의 독서 목적은 입신양명형과 도학주의형, 그리고 문제해결형으로 구분하였으나 이 연구는 유교 사상적 용어를 배제하고 교육적 의미로 조정해 '수양을 위한 독서'와 '실용을 위한 독서'로 대별하였다. 또한 조선시대의 독서 방법은 주자의 다양한 독서법 가운데 '숙독정사'의 방법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설명하였다. 숙독은 한자로 쓰인 독서 자료에 대한 축어적 해독을 위하여 소리내어 읽기, 외워 읽기, 반복해서 읽기를 독서 방법으로 한다. 정사는 해독 이후 깊이 있는 내용의 이해를 위하여 기록하며 읽기, 엮어 읽기, 반복해서 읽기를 독서 방법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숙독정사의 다양한 독서 방법은 오늘날 독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유용하다. 아울러 조선시대 독서 목적인 수양을 위한 독서는 오늘날 교양 독서로, 실용을 위한 독서는 학습독서로 이어지는 반면, 문학 중심의 흥미를 위한 독서는 조선시대 독서론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urpose and method of reading by examining relevant research from various academic fields. According to the reading theory in the Cho-seon Dynasty, reading was classified as either a way of gaining fame, becoming a gentle man, or solving problems. However, this views have been largely replaced by the belief that reading serves two main purposes: self-discipline and practical usage in this study (Confucian perspectives have been excluded from this approach). The traditional reading method, known as sukookdok-jeongsa, influenced by Chu-tzu's reading, emphasized a fluent reading and a deep reading. A fluent reading (sukookdok) method involved a reading aloud, memorizing, and a repeated reading for the literal decoding. After decoding, a deep reading (jeongsa) involved a reading while taking notes, a reading with reference and a repeated reading for the optimal comprehension. A fluent reading in the traditional reading theory is succeeded by 'a reading for liberal arts' and a deep reading is succeeded by 'a reading for learning'. The sukookdok-jeongsa's various reading methods are useful enough to apply to reading education in the school library. But 'a reading for fun' did not appear in the traditional reading theory.

키워드: 조선시대 독서론, 독서관, 독서 방법, 독서 목적, 독서교육

Reading Theory, View of Reading, Reading Purpose, Reading Method, Reading Education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문헌정보교육과 조교수, 학교도서관연구소 연구원

(paul7493@kongju.ac.kr / ISNI 0000 0004 7783 7319)

논문접수일자: 2023년 4월 21일 최초심사일자: 2023년 5월 5일 게재확정일자: 2023년 5월 19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2): 31-50, 2023. <http://dx.doi.org/10.4275/KSLIS.2023.57.2.031>

\* Copyright © 2023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독서가 '책을 읽는 행위' 이상으로 학문 체계의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시기는 1930년대 미국에서부터이다. 독서의 학문적 영역을 '독서사학회, 독서생리학 및 독서심리학, 독서교육학'으로 구분한 Gray(1952)가 대표적이다(변우열, 2016, 28). 이후 독서는 문헌정보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교육학, 문학, 텍스트 언어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국외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독서에 대한 연구는 해외 학술논문 DB인 LISTA에 등재된 독서 및 독서교육 관련 주요 연구성과를 지적구조분석을 통해 일반 영역, 독자, 자료, 방법 및 실제, 기관 등 영역별로 고르게 연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관준, 2015). 이와 함께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독서와 관련된 연구는 시기로는 2003년을, 주제로는 독서 프로그램 영역(독서 치료 포함)을 중심으로 주목받을 만큼 성장했으나 독서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과 철학을 다루는 연구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김중성, 2013, 109-113).

독서의 사전적 정의에서 '읽다[讀]라는 행위'는 의미 상수이다. ICT 기반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급속도로 발달해도(인쇄자료에 대한) 읽기 행위는 초·중등학교 내 교수·학습 과정에서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다. 읽기 행위를 독서 이론과 실재를 이해하는 주요한 기준점으로 보고 선조들의 독서론에서 읽기 행위와 관련된 의미 내역이 현재의 독서 또는 독서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를 아는 건 중요

하다. (인쇄자료) 읽기는 과거와 현재에 공통되고 주요한 학습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전통적 독서론을 살펴볼 수 있는 전제가 된다.

에드워드 카(Edward, H. Carr)는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로 설명하였다. 현재의 다양한 사건, 현상 등은 상호의사소통인 대화와 같이 과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었으므로 이해할 수 있다. 전통적 독서론은 선조들이 주로 어떤 주제의 책을 읽었으며, 책 읽기를 통해 얻으려 한 것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책 읽기를 실천했는가 등을 담고 있다. 현재의 독서 이론과 실재는 이와 같이 독서를 선행한 선조들의 생각, 고민, 흔적을 훑아보고 반추할 때 더욱 풍성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1.2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학문 분야별 독서론의 연구성과를 대상으로 독서 목적과 방법을 살펴보고 이를 재구성하여 문헌정보학 내 독서교육에 시사하는 교육적 의미를 찾는 것이다. 조선시대 독서론의 연구는 당시 시대의 개인 문집 원전에 대한 독자적 해독(literal decoding)과 함께, 맥락을 고려한 의미 해석까지 연구 방법으로 포함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위의 과정은 한문학, 국문학, 교육학 등 인접 학문 분야의 연구성과를 참고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학문 분야별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조선시대 개인 문집 원전에 대한 의미 해석 가운데 독서 목적과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다룬 내용에서 문헌정보학 내 독서교육과 연계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조선시대 독서론에 관한 연구

전통적 독서론은 시기별, 학자별, 학과별로 대별해 서지학에서부터 한문학, 국문학, 교육학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었다. 전통적 독서론의 대상 시대는 학문 분야별 연구성과를 통해 옛 문헌의 의미 해제가 가능한 조선 시대이다. 여말선초(麗末鮮初) 새로운 지식 계층으로 등장한 사대부는 송대(宋代) 성리학을 도학(道學), 심학(心學)으로 삼아 자신을 수양하는[修己] 학문 체계이자, 세상을 다스리는[治人] 통치 이념으로 수용하였다. 이들은 성리학을 탐구하고 실천하며 자신을 수양하는 방법으로, 체계적인 독서론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김은경, 2006a, 13).

조선시대 독서론을 개관하기 위한 조건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인물 다수가 학문적 흐름에 영향을 끼쳤거나 독서와 관련된 인식과 관점을

살필 수 있는 문헌을 풍부하게 남겨야 한다. 인물 중심의 독서론은 유학자 개인이 살던 시대적 조건과 인물의 삶, 그리고 남긴 글들을 토대로 독서 목적, 자세, 방법 등을 파악해 개인의 독서관을 세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독서관은 유학자 개인만의 소산이라기보다 같은 시대의 사회문화적 흐름 안에서 독서 대상의 선정과 독서의 목적, 방법, 자세 등이 편재성(偏在性) 군집을 이룬 총체라고 할 수 있다(김기호, 2010, 50).

이와 같은 인물 중심의 독서론은 학문 분야별로 독서 관련 연구사를 통하여 개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유학자 개인이 남긴 독서에 관한 문헌에 기초하여 인물 중심의 독서론을 시기별로 구분해 종합한 것으로, 국어국문학의 김기호(2009), 문헌정보학의 한미경(2013), 한문학의 엄경섭(2016)이 대표적이다. 위 연구에서 개인의 독서론을 정립했다고 보는 유학자를 시기별로 구분하고 그 빈도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선행연구별 개인 독서관을 정립한 유학자와 빈도

	김기호(2009) (국문학)	한미경(2013) (문헌정보학)	엄경섭(2016) (한문학)
16세기	이황(2/7/10) <sup>1)</sup> , 조식(0/0/1), 성혼(1/0/0), 이이(2/9/3)		
17세기	김우옹(1/0/0), 허균(0/0/2), 이석(2/0/0), 하홍도(0/2/0), 송시열(0/1/0), 윤류(0/2/0), 박세채(0/1/0), 이현석(0/0/1), 이덕수(0/0/1), 이익(0/3/0)		
18세기	양응수(2/0/1), 서명서(1/0/0), 안정복(1/0/0), 이도현(1/0/1), 홍대용(0/1/0), 박지원(0/4/2), 이덕무(8/11/5), 정약용(5/7/7), 홍석주(1/0/0), 홍길주(3/2/4)		
19세기	유만주(0/0/1), 최한기(1/0/1)		

1) 유학자 이름 다음의 괄호 안 숫자는 선행연구별 등장 횟수를 의미한다. <표 1>에서 16세기 이황(2/7/10)이라는 기술 표현은 김기호(2009)에서 이황의 독서관을 언급한 연구는 5회, 한미경(2013)에서 7회, 엄경섭(2016)에서 10회에 언급되었음을 의미한다.

## 2.2 조선시대 독서론의 구분 기준

조선시대 독서론을 개관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대를 살았던 유학자들이 공유하고 구분되는 독서관이 있어야 한다. 조선시대 독서론에 대한 연구는 대개 주자, 이식 등 유학자 개인의 독서관을 밝히는 데부터 시작됐다(沈喁俊, 1974; 윤병태, 1978). 유학자 개인 독서관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문헌정보학 내에서 조선시대 독서론 일반으로 설명하려는 연구는 김수경(2002), 한미경(2013)이 대표적이다. 이들 연구가 개별 유학자의 옛 문헌에 대하여 내용 비평을 통해 결론 내린 성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더라도, 독서에 대한 일반적 이론 연구가 부족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조선시대 독서론을 내용으로 한 선행연구의 성과임을 부인할 수 없다.

시대별 영향력 있는 유학자 개인의 독서관을 공시적으로 통합하려는 연구는 金泳(1989)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조선 중기 사림학과(士林學派)를 대표하고, 공시적 독서관을 세울 수 있는 이황과 이이의 개별 독서관을 살피고, 이를 통합해 시대별 특징으로 구분지었다. 같은 시기를 살았던 유학자들이 공유한 독서관을 기준으로 조선시대 독서론은 크게 셋으로 구분하였다. 麗末鮮初에 등장한 초기 사대부인 관료사장과(官僚詞章派)의 독서는 ‘입신양명형(立身揚名型)’으로, 이황과 이이를 중심으로 조선 중기 사림도학과(士林道學派)의 독서는 ‘도학주의형(道學主義型)’으로 命名하였다. 그리고 조선 후기 실학파의 독서관은 실학자 개인별 독서관 차이가 뚜렷함에도 당대 현실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실천적 탐구를 했다는 점에서 ‘문제해결형’ 독서관으로 포괄,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시대 구분과 특징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는 이 연구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상당수 선행연구는 유학자 개인이 독서를 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독서 방법을 중심으로 위와 같은 전통적 독서론의 구분을 따랐다(金泳, 1989; 김수경, 2002; 박수밀, 2005).

이 가운데 官僚詞章派의 ‘立身揚名型’ 독서관은 독서 방법을 파악하는데 제한적이다. 이 시기, 유학자 개인의 독서관과 관련된 연구는 세종의 독서 방법인 백독백습(百讀百習)을 소개한 이만수(2004) 정도이며, 학문적 흐름에 영향을 끼치거나 시대적 특징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옛 문헌을 충분히 남지 않아 독서 목적과 독서 방법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독서론의 시대 구분에 반영된 것은 조선 개국 초기 관료 사회 형성에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끼친 과거 제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 제도는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비롯한 경학(經學)에 대한 이해와 문장 제술(製述) 능력, 사회 현안에 대한 인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양반 관료를 선발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經學을 구두시험[講經]으로 볼 것인가, 지필시험[製述]으로 볼 것인가의 논의는 결국 官僚詞章派의 독서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차미희, 2012, 304-305).

이와 같은 官僚詞章派의 독서에 대하여 이황은 “다만 글귀나 외우고, 과거를 보는 것만을 업으로 삼으니, 이러한 공부는 수양과 실천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sup>2)</sup>으로 지적하며, 과거 시험을 위한 독서를 우선 순위로 두는 세태를 비판하였다(金泳, 1989, 213). 독서는 개인의 수양과 실천이 목적이어야 함에도, 과거가 목적인 독서

는 반성없는 經書 암기에 불과함을 경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등과(登科)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독서를 보던 조선 초기 '立身揚名型 독서관'에 대한 반발로 이황과 이이를 중심으로 도(道)에 뜻을 두고, 성인을 본받아 인격을 도야(陶冶)하는 조선 중기 '道學主義型 독서관'이 등장한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독서관의 학문적 배경이자 사변적 사상 체계인 성리학은 임진·병자 양란(兩亂)을 거치며 드러난 현실 사회나 민생 문제에 대한 해결보다는 사장지학(詞章之學)으로 흐르고, 다른 학문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폐쇄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조선 후기 이용후생(利用厚生)을 통한 국리민복(國利民福) 증진을 꾀하며 과학적·실천적 학문을 추구하려는 유학자 일군이 등장한다(朴容澈, 2001, 3). 실학과로 분류되는 이익, 이덕무, 홍길주, 박지원, 정약용, 등은 사료 검증 가능한 다양한 문헌을 통해 개인의 독서관을 적극적으로 밝혔다. 이들의 독서관은 실학을 구현하는 방법은 서로 다를지라도, 실천적 문제 의식을 공유하며 실용지학(實用之學)을 해야 한다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일치한다(한미경, 2013; 엄경섭, 2016). 이들은 독서 그 자체가 주는 위안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실생활의 편리와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독서를 하였다. 또한 책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방법을 재구성하고 텍스트에 따른 읽기 방법을 달리하는 등 다양한 '읽기 방법의 개별화'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하였다. 이렇듯 실학자는 현실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공동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독서

를 한다는 의미에서 '문제해결형' 독서관으로 규정하기도 한다(김은경, 2006a, 115-149).

### 3. 조선시대 독서론에서의 독서 목적

#### 3.1 조선시대 독서론의 구분 재검토

문헌정보학 분야 내 조선시대 독서론 연구인 김수경(2002), 한미경(2013)은 金泳(1989)의 구분을 따라 조선시대 독서론의 구분을 '立身揚名型', '道學主義型', '문제해결형'으로 대별하였다. 이와 같은 독서론의 구분은 조선시대를 유교 사상적 흐름의 변화에 따라 셋으로 구분한 역사적 구분법(김준석 외, 1995)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立身揚名型은 조선 전기로, 道學主義型은 중기로, 문제해결형은 후기로 대응된다. 조선 시대사 구분을 참고한 이와 같은 독서론의 구분은 이전 시기의 잘못된 독서관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기에 기존 독서관과 대치 또는 단절 관계로 설정된다. 사익(私益)을 목적으로 하는 '立身揚名型' 독서 대신 登科를 하지 않고 오직 마음의 수양을 위하여 독서를 하거나, 현실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道學主義型' 독서 대신 농업, 상업 등에 필요하여 독서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3분법 구분에 속한 독서관을 견지하더라도 동일 유학자가 이전의 독서관을 완벽하게 배척하고 단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선 후기의 독서론은 문제해결형 독서관으로 설명하지만 동일 유학자가 독서의 본질을 '문제 해

2) 今人非不讀之 而只以帖誦決科爲業 於身心了不相關. 『退溪集』, 『言行錄』

결'과 함께 '성현을 본받으려 하는'(道學主義型) 구체적인 방법으로 함께 고민하고 공유한다는 것이다.

반드시 먼저 경학 공부를 하여 밑바탕을 확고히 하고(이하 밑줄은 연구자) 그 후에 옛날의 역사 책을 섭렵하여 得失과 治亂의 근원을 알아야 한다. 또 반드시 실용의 학문에 마음을 두어 고인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구했던 글들을 즐겨 읽도록 해야 한다. 이런 뜻을 마음에 새기고 만백성에게 혜택을 주고 만물을 자라게 해야겠다는 意思를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讀書君子'가 될 수 있다<sup>3)</sup>(金泳, 2003, 5-6).

위의 내용은 문제해결형 독서관을 대표하는 실학과 유학자 정약용이 생각하는 독서의 본질과 의의로, 독서는 經學 공부를 중시하는 道學主義型 독서를 한 후에야 비로소 실용을 위한 학문(독서)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생각은 같은 실학과 유학자 이덕무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비가 독서를 귀중히 여기는 것은 한 언어, 한 동작에서 반드시 성현의 행동과 훈계를 준칙으로 삼아 전도됨이 없기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속 사람이 글자 한 자도 읽지 않아 방향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거론할 것도 못되거나, 글을 많이 읽었다고 분디 일컬어진 자까지도 다소 배운 글귀를 科擧 글에만 사용하고 자기

몸에는 한 번도 시험하여 그 효험을 받지 않으니 매우 애석한 일이다<sup>4)</sup>(金德珍, 2002, 13).

실학과 유학자 이덕무가 말한 독서 목적은 수양을 목적으로 하는 독서를 통한 인격의 완성(道學主義型)과 현실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서를 같은 위상으로 보았다. 앞서 구분한 단절 관계의 독서론은 위와 같이 동일 유학자 내 다양한 독서관의 공존과 연속성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독서론을 구분한 명칭 또한 유교 사상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어 현재의 독서교육론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김은경(2006a, 42-43)은 조선시대 독서론의 구분 기준을 교과 교육론으로 수용해 '수양 중심의 독서기'와 '실용 중심의 독서기'로 제안하였다. 물론 위 연구 역시 실학과 유학자 이익의 등장을 분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라는 2분법에 따라 조선시대 독서론을 구분하고, 讀書期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시기를 기준으로 독서관을 구분한 점은 기존 3분법의 구분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김은경(2006a)의 독서관 구분은 立身, 揚名, 道學 등 유교 사상적 흐름을 반영하지 않았고, 오늘날 문헌정보학 분야 내 독서교육 유형을 '인성교육을 위한 교양 독서'와 '교과 학습과 연계한 학습 독서' 등으로 구분한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술훈위위원회(2013, 164)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를 참고해 이 연구는 조선시대 독서론의 구분을 조선 전기·중기·후기에 대응하는 시대

3) 必先以經學立著基址 然後涉獵前史 知其得失理難之源 又須留心實用之學 樂觀古人經濟文字 此心常存澤萬民育萬物底意思然後 方做得讀書君子. 『與猶堂全書』, 『奇二兒』

4) 士貴讀書者 一言語 一動作 必思聖賢事行訓戒引 以爲準則可無顛倒俗人 不讀一字 專無指向恣情而行此不足道至於素稱 多讀書者專用章句 於科擧之文自家身上不一試而受其驗效可哀之甚也. 『靑莊館全書』, 『士小節』

구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독서 목적이 부각되고, 시대 구분에 구애받지 않도록 '수양을 위한 독서'와 '실용을 위한 독서'로 세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3.2 수양과 실용을 목적으로 하는 독서

수양(修養)의 사전적 의미는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품성이나 지식, 도덕 따위를 높은 경지로 끌어올림”이다(표준국어대사전). 수양 중심의 독서관은 ‘독서를 통해 성현의 뜻을 살피고, 성현의 뜻을 통해 자연의 이치를 살피는 것<sup>5)</sup>으로, 책을 읽는 목적이 앞선 ‘수양’의 정의와 같이 성현의 뜻을 배우고 따르는 인간됨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때 성현의 뜻은 ‘공맹(孔孟)의 글’이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성현의 글을 읽고 자기를 돌이켜 보아서 깨닫지 못할 곳이 있거든, 모름지기 성인이 준 가르침이란 반드시 사람이 알 수 있고 행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한 것임을 생각하라. 성현의 말과 나의 소견이 다르다면 이것은 나의 힘씀이 정하지 못한 까닭이다. 성현이 어찌 알기 어렵고 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를 속이겠는가. 성현의 말을 더욱 믿어서 딴 생각이 없이 간절히 좇으면 장차 얻는 곳이 있을 것이다<sup>6)</sup>(박수필, 2005, 146).

성현의 글을 읽는 것이 수양 중심의 독서관이 라면 성현의 글을 읽고, 그 내용에 따라 몸과 마

음을 갈고 닦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수양이다. 이 연구는 성현의 글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가를 논하기보다 어떤 방법으로 성현의 글을 읽는가에 초점을 두고 살피려 한다. 성현의 뜻을 담은 독서 자료는 儒家에서 정한 독서 순서에 따라 四書와 五經, 그리고 『二程全書』, 『朱子大全』, 『性理大全』과 같은 성리학 서적과 『資治通鑑』, 역대 정사류 같은 사서(史書) 등을 읽었다(金懋珍, 2002, 7-8). 수양을 위한 독서는 道學, 心學을 내용으로 하는 經書를 읽고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읽기 태도 역시 수양 과정으로 본다.

매양 글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얼굴을 정숙하게 가지고 단정히 앉아서 심지를 전일하게하여 한 가지 글이 익숙해진 다음에 비로소 다른 글을 읽을 것이요, 많이 보는 데에 힘쓰지 말아야 하고 기억하는 것만을 일삼지 말아야 한다<sup>7)</sup>(鄭炳憲, 1996, 48).

글을 읽는 소리는, 깔깔한 소리로 읽는 것도 글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미끈한 소리로 읽는 것도 글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 모름지기 온아하고 자상하고 원활하고 분명하게 읽어야 한다<sup>8)</sup>(金王奎, 1999, 151-152).

수양을 위한 독서는 성현의 뜻이 담긴 성경현전(聖經賢傳)을 귀하게 여기는 정서적 태도에서 시작되어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며 의미

5) 讀書以觀聖賢之意 因聖賢之意 以觀自然之理. 『朱子語類』, 卷10  
 6) 讀聖經 反諸己 有不通曉處 須思聖人垂訓 必就人可知可行者立言 而聖賢之言如彼 我之所見 如此 則是自我著力不精之故也 聖賢豈以難知難行者 欺我哉 益信聖賢之言 而虛心求之 則將有見得處. 退溪集. 『言行錄』, 『類編』  
 7) 每讀書時 必肅容危坐 專心致志 一書已熟 方讀一書 毋務汎覽 毋事彊記. 『栗谷全書』, 『學校模範』  
 8) 讀書聲 澁者滑者 俱不領會文義 須當溫詳圓明. 『靑莊館全書』, 『士小節』

를 파악하고 뜻을 깨닫기 위한 독해·이해의 과정으로 계속된다. 수양을 위한 독서의 대표적인 유학자 이이와 이황 외 성혼과 송시열 역시 經書를 읽는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글자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구절에서 요지를 찾아내는데 앞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을 찾지 말아야 하고 이것을 꿰뚫지 못하면 저것으로 뜻을 옮기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단계를 따라 점진적으로 읽어간다면 뜻이 정해지고 이치가 밝혀지게 되고 건너뛰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sup>9)</sup> (金恩暻, 2006b, 306-307).

학문은 반드시 이치를 밝히는 것으로 우선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밝히는 요점은 반드시 먼저 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글을 읽을 때에는 마음을 오로지 하고 뜻을 잡아 사물에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아야 이것이 마음을 단속하는 공이 결합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단속하면 이치가 더욱 밝고 이치가 밝으면 갖는 것이 더욱 굳어져 그것으로 몸을 단속하고 그것으로 실천하는 데 저절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sup>10)</sup> (김은경, 2006a, 51).

한편, 실용을 위한 독서는 성리학 세계관 안에서의 수양을 위한 독서를 바탕으로, 조선 사

회가 직면한 다양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독서에서 찾고 이를 실현하려는 일군의 실학자들의 책 읽기이다. 실용을 위한 독서는 실학과로 알려진 박지원과 정약용의 독서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릇 독서하는 사람은 독서를 통해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글짓는 기술을 풍부하게 함인가. 글 잘한다는 명예를 높이기 위함인가? 학문을 강론하고 도를 논의하는 것은 독서의 일이고, 孝弟忠信은 강학의 실제요, 禮樂刑政은 강학의 응용이다. 독서를 하더라도 실제의 쓰임을 모른다면 참된 강학이 아니다. 강학에서 귀하게 여기는 점은 장차 실제로 쓰이게 하려는데 있다<sup>1)</sup> (이성희, 2007, 107-108).

반드시 경전에 대한 공부를 하여 밑바탕을 확고하게 한 후에 옛날의 역사책을 섭렵하여 정치의 득실과 잘 다스려지고 못 다스려지는 이유의 근원을 알아야 하며, 또 반드시 實用的 學問에 뜻을 두어서 옛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구했던 글들을 즐겨 읽어야 한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으면서, 만민을 윤택하게 하고 만물을 번성하게 자라게 해야겠다는 뜻을 가진 뒤에 라야 비로소 올바른 독서 군자가 될 것이다<sup>2)</sup> (朴容澈, 2001, 41-42).

9) 字求其訓 句索其旨未得 乎前則不敢求其後 未通乎此 則不敢志乎彼 如是 循序而漸進焉 則意定理明 而無疎易凌躐之患矣. 『牛溪集』, 『爲學之方』  
 10) 學必以明理爲先 明理之要必先於讀書 讀書之時專心致志 不爲事物所撓奪則 是兼有操存之功矣 操存而理益明 明理而存益固 以之檢身以之踐履 自可得力矣. 『宋子大全』, 『答朴大淑別紙』  
 11) 夫讀書者 將以何爲也 將以富文術乎 將以博文譽乎 講學論道 讀書之事也 孝弟忠信 講學之實也 禮樂刑政 講學之用也 讀書而不知實用者 非講學也 所貴乎講學者 爲其實用也. 『燕巖集』, 『原士』  
 12) 必先以經學立著其址, 然後涉獵前史, 知其得失理亂之源, 又須留心實用之學, 樂觀古人經濟文學, 此心常存, 澤萬民育萬物底意思, 然後方做得讀書君子. 『與猶堂全書』, 『寄二兒』



실용을 위한 독서는 당시 조선 사회의 수양 중심의 독서를 부정하기보다 이를 토대로 발전된 독서 목적으로 확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용을 위한 독서는 책을 마구잡이로 읽기보다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고 넓게 고찰하고, 세밀하게 읽을 것을 권했다(金泳, 1993, 269-271). 또한 현실에 도움이 되기 위해 독서를 하고 회의(懷疑)와 유추(類推)의 과정으로 經書를 읽었으며, 백과사전식 다독을 독서 방법으로 취했다는 점이 공통이다(박수밀, 2005, 141-160).

부의 이념 체계로 수용됨에 따라 정치, 종교, 문화, 사회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주자의 독서법은 자연스럽게 유학자들의 학문하는 방법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에 한미경(2013)은 조선시대 독서론을 대상으로 한 연구성과를 문헌분석과 역사연구방법으로 유학자별 개인 독서관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시기별, 학자별, 독서 단계별 독서론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독서 단계별 분석에서 이 연구에서 확인하려는 독서 방법을 담고 있다. 독서 단계별 분석에서 '독서중'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독서 방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 4. 조선시대 독서론에서의 독서 방법

##### 4.1 유학자별 독서 방법

유학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성리학은 정치, 종교,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부인할 수 없다. 성리학의 鼻祖, 주자는 『大學』, 『論語』, 『孟子』, 『中庸』 등 四書를 주해하여 수양을 위한 중심 텍스트로 경전화하고, 그 안에서 道理를 찾는 방법을 독서법으로 제시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조선시대 독서론은 주자의 독서법에 대한 주제적 수용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독서 방법은 제자들과 사서를 강학한 어록 모음집인 『朱子語類』 권 10, 11<sup>13)</sup>에 잘 드러난다. 성리학이 麗末鮮初 새롭게 등장한 지식인 집단인 사대

##### 4.2 熟讀精思를 통한 독서 방법

조선시대 독서론에서 언급된 독서 방법 모두가 주자의 독서법에 근간을 두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도 성리학이 전통 사회에 끼친 영향을 생각하면 거꾸로 일말 부정할 수도 없다. 『朱子語類』의 독서법에 나타난 책 읽기 방법은 철학, 종교, 교육, 문학 등 학문 분야에 따라 虛心靜看, 扶開縫罅, 迎刃而解, 平心, 虛心涵泳, 切己體察, 體認 등과 같은 철학적 읽기 방법에서부터 音讀暗誦, 反覆玩味, 熟讀, 熟讀精思, 循序漸進 등과 같은 실질적 읽기 방법에 이르기까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리된다(이용주, 1998, 248-254; 藤原靜郎, 1998, 148-149; 노병성, 2006, 160-166; 강영안, 2001, 13-18). 다양한 주자의 독서법 가운데 속독정사(熟讀精思)

13) 140권으로 이루어진 『朱子語類』에서 권 10과 11이 독서법에 해당되며, 주자서당에서 이루어진 '독서에 대한 강의'와 그의 제자들 사이에 오고 간 '문답'을 편집한 책이다. 『朱子語類』 독서법의 주된 내용은 크게 독서 목적론, 독서 인식론, 독서 자세론, 독서 방법론, 독서 단계론, 독서 병폐론, 독서 수양론 등으로 구분되며 이에 대하여는 김기호(2018)를 참고할 수 있다. 또한 『朱子語類』의 서지적 구성과 우리나라로의 전래, 조선조 내 간행 등에 대한 내용은 김문식(2011)을 참고할 수 있다.

〈표 2〉 독서론에서 책 읽기 방법의 내용

단계	특징	방법	유학자
독서 중	완독 여부	끝까지 읽기	이이
		추려 읽기	홍길주
	집중하는 방법	정독	이황, 이이, 정약용
		체계적으로 읽기	이황, 이이, 이덕무, 박지원
		핵심을 짚으며 읽기	이덕무
		속독	이황, 이이, 이덕무, 정약용
		반복적 읽기	정약용
	내면화 방법	체득(體得)	이황
		격물치지(格物致知)	하홍도, 박세체
		자득(自得)	윤휴, 이덕무, 박지원
		이의역지(以意逆志)	이익, 홍대용
		여러 번 반복하기	정약용
	능동적인 태도	선별하여 읽기	정약용
		핵심을 짚으며 읽기	이덕무
		자료 참고하며 읽기	이덕무
		분석적 읽기(정보의 계열화)	이황, 이이, 정약용
	부가적인 방법	성독, 낭독	이황, 이이, 이덕무
		기록, 초록, 정보의 체계화	이덕무, 정약용, 윤휴, 이익
		참고자료의 활용	정약용

\* 출처: 한미경(2013, 263-265)을 재정리함.

의 독서 방법을 문헌정보학(김수경, 2002)과 교육학(김은경, 2006a), 국문학(김기호, 2010) 등은 속독과 정독의 방법으로 구분해 제시하였다.

무릇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속독을 해야하며, 속독을 마친 후 뜻이 정속해지며, 정속해진 뒤에야 理가 스스로 드러난다(<sup>15</sup>) (金泳, 1989, 208).

무릇 책을 읽을 때는 모름지기 익숙하게 읽어서 그 말이 모두 내 입에서 나오듯이 만들어야 한다. 이어서 정밀하게 생각하여 그 뜻이 모두 내 맘에서 나오는 것같이 만든 뒤에야 깨달을 수 있다. 그 이후 읽기에 익숙하고 정밀하게 생각해 이미 깨달은 뒤에라도 다시 의문 품기를 그치지 않아야 깨달음을 얻는다(<sup>14</sup>) (이용주, 1998, 251-254).

주자가 인식한 熟讀精思의 방법은 성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으로, 글귀 하나하나가 자연스럽게 내면화되는 순간까지 '읽기에 익숙하고'[熟讀], 꼼꼼함 자세로 '세세하게 생각해야'[精思]하는 것이다. 또한 속독과 정독은 따로 읽기 방법이 아닌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읽어 나가는 것으로 본다. 『朱子語類』의 독

14) 大抵 觀書先須熟讀 使其言皆若出於吾之口 繼以精思 使其意皆若出於吾之心 然後可以有得爾 然熟讀精思即曉得後 『朱子語類』, 卷 10

15) 大凡讀書 須是讀書, 熟讀了自精熟, 精熟理自見. 『朱子語類』, 卷 10

서법에는 ‘많이 탐내어 읽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정밀히 읽어야(且要精讀)하며, 책을 넓게 보고 널리 취하는 것은 읽기에 익숙하고 정밀히 생각하는 것’만 못하다(不若熟讀而精思)고 지적하며 熟讀精思를 독서 방법으로써 귀히 여겼다(김은경, 2006a, 34-35).

이와 같은 熟讀精思의 방법은 성리학을 道學으로, 四書를 經典으로 받아드린 수양 중심의 독서관에 잘 나타난다. 이이, 이황과 함께 道學, 수양을 위한 책 읽기를 학문의 방법으로 삼은 조식 등 당대 유학자 또한 熟과 精을 사용해 독서 방법을 말하였다.

오직 속독해라. 무릇 책을 읽을 때 글의 뜻을 알았다 해도 미처 깊이 익히지를 못하면 읽자마자 잊어버리게 될 것이며 마음속에 간직할 수 없다<sup>6)</sup>(金泳, 1989, 215).

학문하는 사람들이 四書를 정독하고 속독하여 진리가 쌓이고 힘이 오래되면 도의 상달함을 알 수 있어 주역을 궁구하는 것이 거의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대개 정독하기만 하고 속독하지 않으면 도를 알 수 없고, 속독만 하고 정독하지 않아도 또한 도를 알 수 없습니다. 정독과 속독이 모두 지극한 뒤에야 골자를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sup>7)</sup>(金恩暻, 2006b, 312)

熟과 精의 한자 새김을 풀어보면 속독은 사전적 의미로 ‘글을 익숙하게 잘 읽음’으로, 정독이 ‘뜻을 새겨가며 자세히 읽음’ 정도이다. 이를

토대로 오늘날 독서교육 관점에서 그 의미를 확장한다면 속독은 ‘글의 뜻을 잘 정리하면서 익숙하게 읽는 방법’으로, 정독은 ‘글이나 책의 내용과 형식을 검토하면서 자세히 읽는 방법’이 된다(변우열, 2015, 38). 하지만 이 정의로 熟讀[익숙하게 읽음]과 精讀[자세히 읽음] 사이의 의미 차이를 구분짓는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렵다. 즉, 독서 자료를 익숙하게 읽어야만 자세히 읽을 수 있으며, 자세히 읽을 수 있어야 익숙하게 읽을 수 있는 순환 구조의 의미 해석이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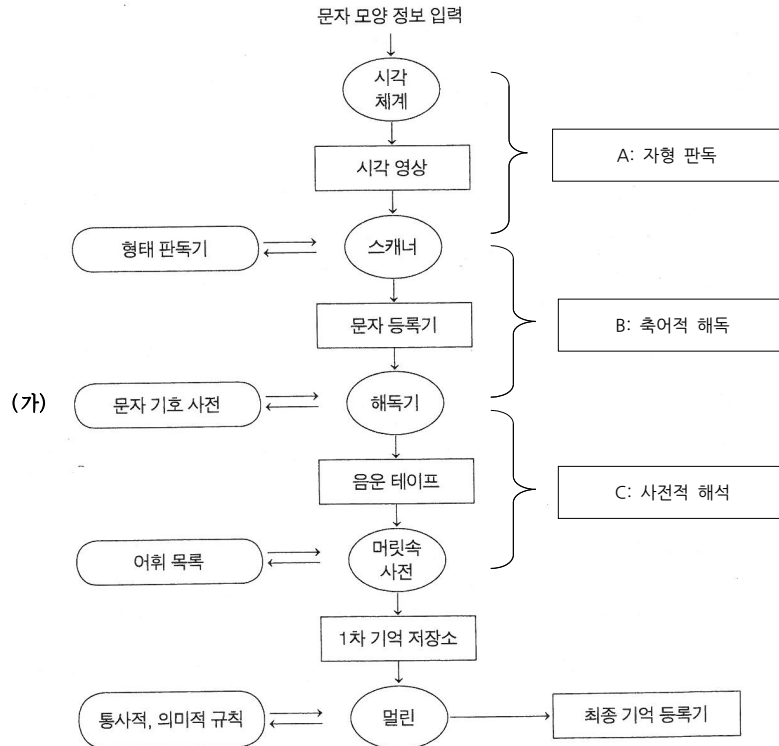
하지만 조선시대 독서론에서의 독서 자료는 한자로 표기된다는 점에서 속독과 정독의 방법은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 오늘날 독서교육 이론에서 독서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은 상향식, 하향식, 상호작용 모형으로 구분되며(박수자, 2001, 11-12; 이경화, 2001, 32-33; 박영목, 2008, 76-77; 이순영 외, 2015, 139-145), 속독과 정독의 의미 구분은 다음의 상향식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은 대표적인 상향식 모형인 Gough 모형으로, 독서의 과정을 문자 언어의 字母 구성에서 음절, 단어, 구, 문장 단위의 순서로 상향 확대되는 과정으로 보고, 문자에 대한 정확한 해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이순영 외, 2015, 139-141).

독자는 시상(視床)에 맺힌 문자 字形을 판독하고(〈그림 1〉의 단계 A), 머릿속 ‘문자 기호 사전’ (가)를 통해 축어적 해독을 한다(단계 B). 형태를 해독한 이후 비로소 머릿속 (어휘) 사전을 활용해 사전적 해석(단계 C)을 시작한

16) 問讀書之法 先生曰 只是熟 凡讀書者 雖曉文義 若未熟則旋讀旋忘 未能存之於心. 『退溪集』, 『言行錄』.

17) 學者須精熟四書 眞積力久 則可以知道之上達 而窮易庶不難矣 蓋精而未熟 則不可以知道 熟而未精 則亦不可以知道 精與熟俱至 然後可以透見骨子了. 『南冥集』, 『示松坡子』.



〈그림 1〉 상향식 독서 과정 모형

\* 출처: 이순영 외(2015, 141)

다. 상향식 모형에 따른 독서 과정은 전통적 독서에서 속독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표음 문자인 한글로 쓰인 독서 자료를 읽기 위해서 〈그림 1〉의 머릿속 ‘문자 기호 사전’(가)에 자·모음 27개만 정확히 안다면 자형의 판독, 축어적 해독(단계 A~B)이 가능하다.

하지만 표어 문자인 한자로 쓰인 독서 자료의 字形을 판독하고 축어적 해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머릿속 ‘문자 기호 사전’(가)의 개수는 표음 문자보다 많아야 한다. 그 개수는 현대 중국어 한자(간체자)가 3,500개 전후, 한국한자능력검정회 주관 공인민간자격 3급 II 수준의 읽기 한자가 1,500자 정도 수준이다. 한자로 쓰인

독서 자료를 대상으로 축어적 해독(단계 B)을 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의 숙련이 필요함을 예상할 수 있다. 즉, 표어 문자는 판독(단계 A)과 해독의 과정이 단어의 발음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字形을 보고 발음하는 방법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축어적 해독을 배우는데 수년 이상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Schwanenflugel & Flanagan, 2021, 448-458).

전통적 독서 환경에서 한자로 쓰인 독서 자료를 읽기 위해서 한자 字形의 정확한 형태 판독과 축어적 해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읽기의 반복이 필요하며 이에 대응되는 읽기 방법은 주자의 독

서법 熟讀精思에서 熟讀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축어적으로 해독한 자형에 대하여 사전적 해석을 토대로 그 뜻을 세세히 풀어 이해하는데 필요한 읽기 방법은 精思로 설명할 수 있다.

### 4.3 熟讀精思의 실현 방법

이 연구에서 주자의 독서법인 熟讀精思의 熟讀<sup>18)</sup>은 표어 문자인 한자의 특성에 따른 ‘축어적 해독 과정’으로, 精思는 해독 후 깊이있는 의미 파악인 ‘독해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한 독서 방법은 단계에 따라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조선시대의 전통적 독서 환경은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불일치 상황으로 일종의 이중 언어 권역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유학자들은 한자로 쓰인 독서 자료에 대한 축어적 해독 과정에 익숙해지기 위하여[熟讀] ‘소리 내어 읽기’와 ‘외위 읽기’, 그리고 같은 책의 ‘반복해서 읽기’를 제안하였다(金王奎, 1999, 151; 朴容澈, 2001, 8).

글 읽는 법은 일과를 정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질질 끄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없다. 많이 읽으려도 말고 빨리 읽으려도 말라. 글을 읽을 글줄을 정하고 횟수를 제한하여 오로지 날마다 읽어 가면 글의 의미에 정통하게 되고 글자의 음과 뜻에 익숙해져 자연스럽게 외게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의 단계를 정하라 잘 이는 글자라고 소홀히 하거나 쉽게 여기지 말고 글자를 달리듯이 미끄러지듯이 줄줄 읽지 말며, 글자를 읽을 때 더듬거리지 말며, 글자를 거꾸로 읽지 말며, 글자를 옆줄로 건너뛰어 읽지 말라<sup>19)</sup>(金恩暻, 2006b, 308).

처음 학문의 길에 들어선 사람의 독서법으로 매일 스승으로부터 배운 기본적인 것을 정밀하게 외는 방법을 권하고, 책을 읽을 때 소리 내어 읽기에 착오가 없이 한 뒤에 비로소 算表를 세우고, 먼저 한 번 읽고, 그 다음 한 번 외우고 그 다음 한번 보며, 한 번 보고 나서는 다시 면것번의 순서대로 되풀이하여 모두 30-40번을 읽고 나서 그치며 전에 읽은 것도 3-4번 읽을 필요가 있다<sup>20)</sup>(金德珍, 2002, 16-17).

무릇 책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한 책을 익숙히 읽어서 意趣를 다 깨달아 꿰뚫어 통달하고 의심이 없는 뒤에야 다시 다른 책을 읽을 것이요, 많이 읽기를 탐하고 얻기를 힘써서 바빠 섭렵하지 말아야 한다.<sup>21)</sup>

위의 글은 속독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유학자 3인으로, 순서에 따라 실용을 위한 독서를 중시한 박지원은 외위 읽기를, 홍대용은 외위 읽기와 소리내어 읽기, 그리고 반복해서 읽기를 제시하였다.

18) 주자의 독서법 가운데 하나인 熟讀精思는 이 연구에서 일반 단어 속독, 정독과 구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한자를 사용하였다.  
 19) 讀書之法 莫善於課 莫不善於挖 母食多 無欲速 定行限遍 惟日之及 旨精義明 音濃意熟 自然成誦 乃第其次 字母習 字母易 字母蹶 字母滑 字母澁 字母倒 字母傍. 『燕岩集』, 『原士』  
 20) 惟初學, 舍記誦, 益無依據, 每日將所受書, 先要精誦, 音讀無錯, 然後始立算, 先讀一遍, 次誦一遍, 次看一遍, 看已復誦, 摠得三四十遍而止, 每畢受一卷 或半卷, 并前受亦 先讀, 次誦, 次看, 各得三四遍而止. 『湛軒書』, 『與梅軒書』  
 21) 凡讀書 必熟讀一冊, 盡曉義趣貫通無疑然後 及改讀他書, 不可貪多務得 忙迫涉獵也. 『擊蒙要訣』, 『讀書』

마지막은 수양을 위한 독서를 중시한 이이는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을 것을 속독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熟讀은 한자의 축어적 해독에 익숙하기 위한 독서 방법이다. 조선시대 독서론에서 熟讀을 위한 구체적인 독서 방법은 ‘소리 내어 읽기’와 ‘외워 읽기’, 그리고 같은 책의 ‘반복해서 읽기’ 정도이다. 音讀으로 알려진 ‘소리내어 읽기’는 구어와 문어가 일치하지 않은 환경에서 漢字를 유창하게 읽기 위한 기본적인 독서 방법이다. 소리 내어 읽더라도 거꾸로 읽지 말고 잘못 읽거나 빠뜨려 읽지 말 것이며 건너뛰어 읽지 말고 한 글자 한 글자를 정확하게 소리를 내어 읽기를 권한다. 또는 입을 대상을 정확하게 외워서 반복해 읽을 것을 권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또박또박, 외워서, 반복해서 소리 내어 읽기의 방법은 결국 읽기의 자동성과 유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한자 字形을 정확하게 깨치고 소리내어 읽기에 유창해지면 독자의 인지적 부담은 줄고 자연스레 깊이 있는 의미 파악의 활동에 집중하는데 도움을 준다. 즉, 읽기에 능숙한 독자는 인지적 자원을 글자 해독하는데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글의 내용을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인지적 자원을 갖게 될 수 있다(Schwanenflugel & Flanagan, 2021, 218). ‘소리 내어 읽기’와 ‘외워 읽기’, 그리고 같은 책의 ‘반복해서 읽기’를 통하여 한자로 쓰인 독서 자료를 읽기에 익숙해지면[熟讀] 본격적으로 깊이 있는 의미 파악의 읽기 방법[精思]이 시작된다.

精思는 축어적 해독이 끝난 이후 의미를 파

악하기 위한 정독과 같은 독서 방법이다. ‘세세하게 읽는다’의 구체적인 방법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을 둔다. 특히 실용을 독서의 목적으로 하는 유학자들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책 읽기 방법에 관한 내용을 많이 남겨 참고할 수 있다.

무릇 책에 있어서 눈으로 지나가고 입으로 지나가는 것은 마침내 손으로 쓰는 것만 못하니. 왜냐하면 손이 움직이면(써보면) 마음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이다. 비록 이십여 편을 읽더라도 한번 요점을 잡아 기록할의 공이 많음만 못하다<sup>22)</sup>(金王奎, 1999, 151-152).

책을 읽으며 기록하는 행위는 시대, 지역에 구애받지 않는 공통된 독서 방법이다. 읽기와 관련된 쓰기 활동은 책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거나 누군가에게 전하는 과정이다. 精思의 구체적인 독서 방법인 ‘기록하며 읽기’는 책을 읽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베껴쓰는 초록(抄錄)과 내용에 대한 궁금한 점, 깨달은 점 등을 쓰는 질서(疾書)로 나눌 수 있다. 오늘날의 독서 전략의 관점에서 抄錄은 ‘요약, 정리하며 읽기’ 정도로, 疾書는 ‘질문하며 읽기 정도’에 해당된다.

‘기록하며 읽기의 방법’으로써 抄錄은 읽는 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송시열이 쓴 『看書雜錄』은 책을 읽으며 궁금한 내용을 적거나 주자의 주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기록해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메모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 정약용의 抄錄은 단순히 읽은 내용에 대한 정리에 그

22) 凡書目過口過 終不如手過 蓋手動則心必隨之 雖覽誦二十遍 不如鈔撮一次之功多也. 『靑莊館全書』, 『士小節』

치지 않고 자료를 모으거나 새로운 사실을 적는 방식으로 적용하였다(金恩暉, 2006b, 324-325).

‘기록하며 읽기’의 또 다른 방법에는 疾書가 있다. 疾書는 장재가 『正夢』을 저술할 때 거처하는 곳마다 붓과 벼루를 갖추어 두고 밤중이라도 解得한 것이 있으면 잊지 않기 위해 바로 써 두는 태도에서 비롯된 독서 방법이다(鄭珉, 2005, 531-532). 疾書를 독서 방법에 적극 이용한 대표적인 유학자는 이익으로, 經書를 읽을 때 경문과 주석을 세세하게 읽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빠르게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읽으며 기록하는 疾書를 방법으로, 주자가 集註한 經書 등을 字句로부터 訓字에 이르기까지 반복하여 사색하고 깊이 궁구하여 11종에 이르는 經書[諸經]를 정리[疾書]하였다(원재린, 2009, 86-89).

정약용은 ‘기록하며 읽기’(抄錄과 疾書)와 함께 세세하고 읽는 精思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읽어 읽기’를 제시하였다. 책을 읽어 가다가 중요한 개념이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여러 가지 서적들을 참고해서 세밀하게 연구함으로써 그 책의 근본 뿌리를 캐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릇 독서라는 것은 도중에 名義를 모르는 글자를 만날 때마다 넓게 고찰하고 세밀하게 연구하여 그 근본 뿌리를 파헤쳐 글 전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날마다 이런 식으로 한 종류의 책을 읽는다면 겹겹이 수백 가지의 책을 뒤적이게 된다. 이렇게 읽어야 읽는 책의 義理를 효연하게 꿰뚫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이 점 깊이 명심해야 한다<sup>23)</sup>(鄭珉, 2005, 525).

정약용이 소개한 ‘읽어 읽기’는 책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심스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관련 자료를 찾아 온전히 이해하고 의심을 해소하며 읽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약용이 유배 중 아들 학유에게 쓴 편지에서 소개한 독서 방법으로, 『史記』, 『刺客列傳』에 나오는 ‘祖祭를 지낸 뒤 길에 올랐다[既祖就道]는 구절을 예시로 ‘읽어 읽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제사명에 할아버지 ‘조’를 쓰는가에 대한 의문은 字典을 찾아 의미를 찾고, 그 풀이와 해석을 살펴 『通典』, 『通志』, 『通考』와 같은 책에서 조제의 예법을 찾아 정리하며 읽도록 권하는 독서 방법이다(鄭珉, 2005, 525-526).

이외에도 精思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熟讀에서 소개한 ‘반복해서 읽기’ 역시 적용될 수 있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史記』, 『伯夷列傳』을 1억 1만 3천번 읽었다는 김득신의 다독은 세세하게 읽고 그 뜻을 파악하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5. 결 론

문헌 해석과 비평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조선시대 독서론은 주자의 독서법을 바탕으로 관련 학문 분야별 선행연구를 참고해 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 내 독서론에 대한 연구는 독서관 구분, 독서 대상, 독서 방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조선시대 독서론에 대한 구분은 대개 金泳(1989)을 참고해 ‘立身揚名型, 道學主義型, 문제해결형’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麗末鮮初 성리학을 수

23) 凡讀書, 每遇一字, 有名義不曉處 須博考細究, 得其原根 仍須詮次成文 日以爲常 如是則讀一種書 兼得旁窺百種書, 仍可於本書義理, 曉然貫穿, 此不可不知也. 『與猶堂全書』, 『寄遊兒』

용해 등장한 신흥 계층은 관료로의 진입이나 마음의 수양을 위하여 무엇을 읽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등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독서론으로 수용하였다.

조선시대 독서론의 구분은 立身, 揚名, 道學 등과 같이 유교 사상적 흐름을 반영하여 命名한 점과 독서관을 반발과 단절의 관계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독서관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찾기는 어렵다. 이에 교과 교육학 관점에서 전통적 독서론을 연구한 김은경(2006a)을 참고하여 독서 목적을 기준으로 상정하여 '수양을 위한 독서'와 '실용을 위한 독서'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구분에서 '수양'과 '실용'은 반발 관계에 따른 단절로 보지 않고 동시 공존의 관계로 독서를 한다고 보았다. 수양을 위한 독서는 주로 유교 經書와 史書 등을 독서 대상으로 삼으며 읽기뿐만 아니라 태도까지도 중시하였다. 실용을 위한 독서는 수양을 위한 독서를 바탕으로 당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 농업, 기술 등의 실용 분야와 관련된 독서 자료를 함께 읽었다.

조선시대 독서론에서의 독서 방법은 주자의 독서법 중 하나인 熟讀精思로 포괄적으로 설명하였다. 熟讀은 '읽기에 익숙함' 정도의 뜻이지만 조선시대의 독서 자료가 표어 문자인 한자로 쓰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축어적 해독에 익숙하기' 정도로 풀이된다. 한자로 쓰인 독서 자료를 축어적으로 익숙하게 읽기 위하여 '소리내어 읽기'와 '외위 읽기', '반복해서 읽기' 등을 독서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熟讀을 통한 축어적 해독이 끝난 다음은 문면 아래에 숨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독서방법으로 精思를 제시하였다. 精思는 '세세하게

읽음' 정도의 뜻이며, 이를 위하여 '기록하며 읽기, 엮어 읽기, 반복해서 읽기' 등을 독서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기록하며 읽기는 내용의 이해를 돕는 요약 정리하기에 해당하는 抄錄과 읽기 중 떠오른 깨달은 점 등을 적는 疾書로 나눌 수 있다. 엮어 읽기는 字典과 같은 참고자료를 활용하며 내용과 의미를 세세하게 파악하는 독서 방법이다. 이외 같은 책에 대한 반복해서 읽기 역시 독서 자료의 내용을 깊게 이해하기 위한 독서 방법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조선시대 독서론에서의 독서 목적과 방법은 인쇄자료를 중심으로 한 오늘날의 독서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찾을 수 있다. 도서관에서의 독서, 특히 학교도서관에서 독서교육 유형은 크게 학습과 교양, 흥미 등으로 구분된다(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준특별위원회, 2013, 164). 이들 독서교육의 유형을 조선시대의 독서관에 대비하면 학습을 위한 독서는 '실용을 위한 독서'로, 교양을 위한 독서는 '수양을 위한 독서'에 대응되지만 여가와 흥미를 위한 독서에 대응이 되는 도서관은 찾을 수 없다. 이는 조선시대의 독서는 성리학을 배경으로 학문과 수양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여가와 흥미를 위한 독서는 문학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 시기에는 보편적이거나 일상이라 하기 어렵다. 즉, 조선시대에 있어 여가와 흥미를 위한 독서는 문학, 특히 소설을 대상을 하는 점과 傳奇叟를 통해 음성 언어로 향유되다 한글의 보급을 통해 문자 언어로 정착된다는 점에서 조선시대의 독서관인 실용과 수양을 위한 독서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여가와 흥미를 위한 독서 역시 오늘날 독서의 목적, 유형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통시적으로 다룰 후속 주제임은 분명하다.



## 참 고 문 헌

- 藤原靜郎 (1998). 주자학의 '독서'론. 퇴계학논총, 4, 143-153.
- 강영안 (2001). 주자의 독서론. 철학연구, 53, 5-24.
- 김기호 (2009). 고전 독서론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상문화학회, 50, 43-82.
- 김기호 (2010). 『朱子語類』 독서법에 나타난 新意論. 人文研究, 59, 1-36.
- 김기호 (2018). 언어의 역설(paradox)과 주자의 독서 인식론. 퇴계학논집, 23, 323-354.
- 김문식 (2011). 조선본 『朱子語類』의 간행과 활용. 史學志, 43, 63-87.
- 김수경 (2002). 조선시대 독서론의 특성에 관한 고찰.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3(2), 243-263.
- 金泳 (1989). 朝鮮時代 讀書論 研究. 한국한문학연구, 12, 203-225.
- 金泳 (1993). 朝鮮侯期 漢文學의 社會的 意味, 서울: 집문당.
- 金泳 (2003). 실학파의 독서관. 독서연구, 10, 1-18.
- 金王奎 (1999). 朝鮮時代 讀書法에 關한 小考. 漢字漢文教育, 5, 137-199.
- 김은경 (2006a). 朝鮮時代 讀書論과 漢文教科 活用方案 研究.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 金恩暻 (2006b). 朝鮮時代 讀書方法論研究. 漢文古典研究, 13, 303-346.
- 김중성 (2013).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 연구의 경향과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3), 99-124.  
<http://dx.doi.org/10.16981/kliss.44.3.201309.99>
- 김준석, 박광용, 이영훈, 한상권 (1995). 조선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와 현실, 18, 111-153.
- 김관준 (2015). 국의 독서 및 독서교육 연구 동향 분석. 한국정보관리학회, 32(3), 69-97.  
<http://dx.doi.org/10.3743/KOSIM.2015.32.3.069>
- 金憶珍 (2002). 傳統的 讀書方法論의 現代的 受容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 노병성 (2006). 주자의 독서관에 관한 고찰. 한국출판학연구, 51, 131-172.
- 박수밀 (2005). 조선후기 독서론과 독서 방식의 변화. 국제어문학회, 33, 133-167.
- 박수자 (2001). 읽기지도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영목 (2008). 독서교육론. 서울: 박이정.
- 朴容澈 (2001). 實學派 四大家 讀書論의 意義와 現代的 繼承. 석사학위논문, 成均館大學校 教育大學院 漢文教育 專攻.
- 변우열 (2015). 독서교육의 이해.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변우열 (2016). 독서과학의 학문적 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2), 27-50.
- 沈喁俊 (1974). 韓國圖書館學研究의 回顧와 展望. 圖協月報, 15(12), 17-21.

- 엄경섭 (2016). 조선시대 독서론의 연구 경향과 그 전망. *동남어문논집*, 41(5), 5-38.
- 윤병태 (1978). 퇴계와 심경부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 67-89.
- 원재린 (2009). 退溪 李滉과 星湖 李瀾의 敎學論 비교 검토. *한국학*, 32(1), 81-100.
- 이경화 (2001). 읽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서울: 박이정.
- 이만수 (2004). 독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독서문화연구*, 3, 27-41.
- 이성희 (2007). 조선시대 중인층의 독서론에 관한 연구. *독서문화연구*, 6, 93-137.
- 이순영, 최숙기, 김주환, 서혁, 박영민 (2015). *독서교육론*. 서울: 사회평론.
- 이용주 (1998). 독서와 수양. *종교연구*, 15, 229-258.
- 鄭珉 (2005). 고전 독서방법론의 양상과 층위. *한문교육논집*, 25, 515-547.
- 鄭炳憲 (1996). 傳統的 讀書觀과 그 現代的 意味. *독서연구*, 1, 35-54.
- 차미희 (2012). 조선시대 문과 연구의 동향과 전망. *역사교육논집*, 49, 287-320.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준특별위원회 (2013). *한국도서관기준 (2013년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미경 (2013). 조선시대 독서론의 전개 양상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56, 249-273.
- Schwanenflugel & Flanagan (2015). *the Psychology of Reading*. 서혁, 윤준채, 이소라, 류수경, 오은하, 편지은, 윤희성, 변은지, 한은수 옮김 (2021). *독서심리학*.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yun, Woo-Yeoul (2015). *Understanding of Reading Instruction*. Seoul: Korea Library Association.
- Byun, Woo-Yeoul (2016). A study on the academic system of science of reading.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2), 27-50.
- Cha, Mi-Hee (2012). A trends and prospects about Mungwa of Joseon period research. *History Education Review*, 49, 287-320.
- Eom, Kyung-Seob (2016). A research trends and prospects of reading theory in Joseon dynasty. *Dongnam Journal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41(5), 5-38.
- Han, Mi-Kyung (201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eading theory in Chosun dynasty.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56, 249-273.
- Huziwarasizuo (1998). The theory of reading in Chu. *The Toe Gye Hak Non Chong*, 4, 143-153.
- Jung, Byung-Heon (1996). A traditional reading and its modern meaning. *Journal of the Reading Research*, 1, 35-54.
- Jung, Min (2005). The aspects and layers of the reading methodology in Chosun dynasty. *Journal of Chinese Characters Education in Korea*, 25, 515-547.

- Kang, Young-Ahn (2009). Chu his on reading. *Journal of the Society of Philosophical Studies*, 53, 5-24.
- Kim, Eun-Kyung (2006a). A Study on Reading-Theory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and It's Application of Classical Chinese Class. Doctoral dissertation, Major in Sino -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im, Eun-Kyung (2006b). A study about the reading methodology in the Joseon dynasty. *Journal of Korean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13, 303-346.
- Kim, Hye-Jin (2002). A Discussion of the Relative Acceptance of Traditional Reading Method. Master's thesis, Major in Korea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Kim, Jong-Sung (2013). A trends analysis of reading research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3), 99-124.  
<http://dx.doi.org/10.16981/kliss.44.3.201309.99>
- Kim, Jun-Seok, Park, Kwang-Yong, Lee, Yong-Hoon, & Han, Sang-Kwan (1995). How to view Joseon society. *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 18, 111-153.
- Kim, Ki-Ho (2009). The present status and further task of the studies on classical reading theory. *Korean Thought and Culture*, 50, 43-82.
- Kim, Ki-Ho (2010). The Shin-ui theory in reading method of Juja-eolyu and its significance in a reading theory. *The Journal of the Humanities*, 59, 1-36.
- Kim, Ki-Ho (2018). The paradox of language and Zhu Xi's epistemology of reading. *Toegye-Hak-Lon-Gib*, 23, 323-354.
- Kim, Moon-Sik (2011). The publication and use of the Zhuzi Yulei in Korea. *The Historical Journal*, 45, 63-87.
- Kim, Phan-Jun (2015).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reading and reading instruction in overseas: focused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3), 69-97. <http://dx.doi.org/10.3743/KOSIM.2015.32.3.069>
- Kim, Soo-Kyoung (2002). A study on the characters of reading theory in the age of Yi dynast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3(2), 243-263.
- Kim, Wang-Kyu (1999). A study on the reading method of the Joseon dynasty. *Chinese Character and Literature Education*, 5, 137-199.
- Kim, Young (1989). A study on the theory of reading in the Joseon dynasty.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12, 203-225.
- Kim, Young (1993). *Social Meaning of Chinese Literature in the Late Joseon Period*. Seoul:

Jipmundang.

- Kim, Young (2003). A shilhak-scholar's method of reading. *Journal of the Reading Research*, 12, 1-18.
- Korea Library Association Special Committee on Korean Library Standards (2013). *Korean Library Standard* (ed. 2013). Seoul: Korea Library Association.
- Lee, Kyung-Hwa (2001). *Principles and Methods of Reading Education*. Seoul: Pakijung.
- Lee, Man-Soo (2004). A study in the reading education. *Reading Culture Research Institute Journal*, 3, 27-41.
- Lee, Soon-Young, Choi, Suk-Ki, Kim, Ju-Hwan, Seo, Heok, & Park, Young-Min (2015). *The Theory of Reading Education*. Seoul: Sahoipyunglon.
- Lee, Sung-Hee (2007). A study of reading theory of middle class at Chosun dynasty. *Reading Culture Research Institute Journal*, 6, 93-137.
- Lee, Yong-Ju (2001). A reading and cultiv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History of Religions*, 15, 229-258.
- Park, Soo-Ja (2001). *Understanding of Reading Instruction*. Seoul: SNU Press.
- Park, Su-Mil (2005). The change of the reading theory and the reading ways of late Chosun dynasty.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 International Context*, 33, 133-167.
- Park, Yong-Chul (2001). The Significance and the Modern Succession of the Theories of Reading Books of the Four Masters of a Realistic School. Master's thesis, Major in the Education of Chinese Writi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 Park, Young-Mok (2008). *The Theory of Reading Education*. Seoul: Jipmundang.
- Roh, Byung-Sung (2006). A study on Chu-Ja's thoughts of reading. *Studies of Korean Science*, 51, 131-172.
- Schwanenflugel, P. J. & Flanagan, N. K. (2015). *The Psychology of Read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Shim, Woo-Jun (1974). A review and prospect of Korean library studies. *the Monthly Report of KLA*, 15(12), 17-21.
- Won, Jae-Rin (2009). A comparative review of the teaching theory of Toegye Yi Hwang and Seongho Yi Ik.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32(1), 81-100.
- Yun, Byung-Tae (1978). Toegye and Hsin-Cjing-Fu-Chu.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 67-87.